



## 소외계층을 위한 EBS의 역할을 강화해야

EBS Plus1과 EBS Plus2 장애인 수화서비스 없어  
최근 7년간 다문화 학생 6배 급증, 한국문화 및 언어 교육 지원 필요  
탈북 중학생 학업중도 탈락을 일반 중학생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23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EBS의 장애인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화 서비스 확대와 다문화 가정의 언어교육 서비스 확대, 탈북자 청소년들의 위한 학업 지원 서비스 확대”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먼저, EBS의 장애인 웹사이트 콘텐츠의 수화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을 쳐야할 장애인 학생들이 시청하는 EBS Plus 1과 중학생들이 시청하는 EBS Plus 2에는 수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촉구함.

### < 장애인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현황 >

(단위 : 편, 책)

년도	TV			Plus1, Plus2		점역 서비스	합계
	화면해설	자막	수화	화면해설	자막		
2010	357	1076	759	299	1,661	144	4,152
2011	864	500	952	546	2,314	59	5,176
2012	1,000	700	970	310	1,800	163	4,780
2013 목표	624	780	884	391	2,700	170	5,549
2013 실적	397	354	590	140	1,609	20	3,110

\* 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 둘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난해(4만6954명)보다 8813명(18.8%) 늘어난 5만5767명으로 전체 초·중·고생 대비 0.86%에 달함.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 9389명에서 7년 만에 6배가량 늘어났음.
- 따라서, 민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문제와 함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과 언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을 학업 성취도 신장을 위한 교육공영채널인 EBS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음.
- 셋째,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엔 2202명의 탈북 청소년이 들어와 있음. 초등학생이 1204명, 중학생 351명, 고등학생 437명, 대안교육시설 210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중·고생의 중도탈락률은 중학교 8.7%, 고등학교 9.4%로 집계됨. 반면에 일반 중학생들은 0.8%이며 이는 탈북 중학생의 1/11 수준임.
- 민의원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중학생들의 11배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으므로 탈북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끝)